

종합·해설

내일 민주전대...막판 표심은

8만명 시민 선거인단 승부 가른다

당내선 일단 김한길 우세...이해찬 역전 장담

민주통합당이 오는 9일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임시전당대회를 열고 연말 대선을 치를 새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선출한다.

7일 현재까지 판세는 지역순회 경선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한 김한길·이해찬 후보가 당대표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대의원 투표와 일반국민·당원의 모바일·현장투표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 승패를 예단하기는 이른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다수의 정책 대의원이 소속된 한국노총의 김한길 후보 지지선언과 수도권 대의원 및 모바일 선거인단 표심이 최종 경선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를 선출할 30만여명

의 선거인단은 크게 대의원과 시민선거인단으로 나뉜다. 대의원 선거인단 1만5178명 가운데 지역 대의원은 1만 2412여명이다. 이미 투표를 마친 비수도권 대의원은 지역 대의원의 절반에 그친다.

나머지 절반이 몰려 있는 서울·경기·인천 대의원과 2467명의 정책대 의원은 9일 임시전대에서 현장투표를 한다. 재외국민 대의원(209명)은 지난 4~6일 투표를 마쳤다.

또 권리당원 16만여명은 지난 1~2일, 시민 선거인단 12만여명은 5~6일 각각 모바일로 투표했다. 나머지 권리당원은 전대 하루 전인 8일 전국 투표소에서 현장투표하고 이 결과는 9일 최종결과에 합산한다.

비수도권 지역순회 대의원 투표 결

과 김한길 후보가 1위, 이해찬 후보가 2위이다. 이어 강기정·추미애·우상호·조정식·이종걸·문용식 후보 순으로 3~8위를 차지하고 있다. 1위는 당 대표, 2~6위가 최고위원이 된다.

지금까지 비수도권 대의원 표심을 고려할 때 '당심'에서는 김 후보가 한 발 앞서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 분석이다. 지난달 31일 전북 경선까지 결과를 종합하면 김 후보는 대의원 표심에서 22.44%의 득표율로 이 후보(20.35%)를 2%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다.

더욱이 수도권은 손학규 전 대표의 영향력이 막강하고 정책대의원의 대부분을 잡고 있는 한국노총까지 김 후보를 지지하고 있어 대의원 투표는 김 후보의 우세가 확실시된다.

하지만, 모바일투표가 변수다. 지난 1~2일 치러진 권리당원 모바일 투표 결과 16만4010명의 투표권자가

운데 24.7%인 4만570명이 투표를 마쳤다. 5~6일 치러진 당원·시민선거인단 모바일 투표에서는 11만5870명의 투표권자 중 8만5077명(73.4%)이 참여했다.

권리당원 투표까지는 김 후보의 우세가 접전이다. 6개월 이상 담비를 낚아 앞섰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 분석이다. 지난달 31일 전북 경선까지 결과를 종합하면 김 후보는 대의원 표심에서 22.44%의 득표율로 이 후보(20.35%)를 2%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다.

결국, 결정적 변수는 일반시민선거인단의 표심이다. 8만명이 넘게 투표해 참여했기 때문에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 특히 이들이 지난 1월 전당대회 때와 달리 후보를 접하고 있는 한국노총까지 김 후보를 지지하고 있어 대의원 투표는 김 후보의 우세가 확실시된다.

하지만, 모바일투표가 변수다. 지난 1~2일 치러진 권리당원 모바일 투표 결과 16만4010명의 투표권자가



임수경의원 사퇴 요구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의 '변절자' 발언과 관련, 광주시 탈북자경제복합중지위원회 회원들이 7일 민주통합당 광주시당 앞에서 임 의원의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여 非朴 대선주자들 경선 불참 시사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 잠룡 측은 7일 당 지도부가 경선 불참을 협상을 위한 경선준비위 절차 없이 곧바로 경선관리위를 오는 11일 출범시키기로 한 데 대해 "경선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특히 경선 불참 가능성까지 내비쳐 귀추가 주목된다.

정몽준 전 대표측 안희대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 지도부의 방침은 한마디로 경선을 안 하

겠다는 것이자 특정한 추대를 위한 음모"라면서 "사실상 친박(친박근혜)에서 혼자 가겠다는 것이고 우리 보고는 경선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인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재오 의원도 강원일보와 인터뷰에서 "당권파에서는 이미 대통령에 당선된 양 오만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며 "당권과 입맛대로 경선물을 결정하면 다른 비당권파 후보들과 협의해 심각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문수 지사측 신지호 전 의원은 "당 지도부가 경선관리위 출범과 별개로 각 후보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상 혼자 가겠다는 것"이라며 "경선이 무의미해지고 있다. 경선관이 깨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밤 긴급 회동을 갖고 향후 대책을 모색키로 했다. /연합뉴스

민주 대권주자 행보 빨라진다

김두관·문재인·손학규 등 잇단 입장 표명할듯

민주당의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오는 9일 마무리됨에 따라 당내 대선 주자들의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다.

우선 김두관 경남지사는 7일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국가비전연구소 주최 '2012 대선후보 초청 특강'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누리는 부와 신분도 대물림받은 측면이 강하다. 이런 사회에서는 서민들에게 희망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서울 출신 서울대 합격자의 43.6%가 강남3구 출신으로, 현대대 신촌 사회가 되고 있다"며 "국립대 학부는 엘리트교육에서 사회교형발전을 위한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선출마 선언 시기에 대해서는 "민선5기 4년차 중 2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이어서 7월 중순쯤 정리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의원은 9일 전대 이후, 대선 출마 선언에 나서기로 하고 출마선언문에 넣을 정책 등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그는 지난 6일 트위터에 '함께 쓰는 출마선언문'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곧 대통령 출마선언을 하려 합니다"라며 "선언문에 여러분의 의견을 더하고 싶습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대표를 역임한 손학규 상임고문도 전대 이후 출마 선언을 할 방침이며,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도 1학기 강의가 끝나는 6월 하순 이후 대선 출마여부에 대한 입장 표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타임리서치가 지난 4일 민주당 대의원 22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 ±2.0%포인트)에 따르면 대선후보 호감도는 문재인(24.4%) 상임고문, 손학규(22.8%) 상임고문, 김두관 경남지사(20.7%) 순이었다.

수도권과 호남에서는 손 고문, 충청권에서는 문 고문, 강원·제주에서는 김 지사가 우세를 보였고, 영남에서는 문 고문과 김 지사의 지지율이 반비등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이정현 최고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 경선관리위원장

김수환 전 국회의장

새누리당 제18대 대선 경선관리위원회 위원장에 김수환 전 국회의장이 내정됐다.

새누리당은 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선관리위 설치안을 논의, 의결하면서 김 전 국회의장의 위원장

선임을 결정했다고 김영우 대변인이 전했다. 김 전 의장은 15대 국회 전반기인 1996~1998년 국회의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새누리당 상임고문단 의장을 맡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민주, 권재진·서규용 장관 해임안 의결

이계철 방통위원장도

민주통합당은 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권재진 법무부장관,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이계철 방통통신위원장

에 대한 해임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권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개입한 의혹을, 서 장관은 농협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경영개선이행양정(MOU)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또 이 방통위원장도 언론사 장기파업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권재진·서규용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달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용섭 의원 법안 발의

투표 참여자 공무원 시험서 가산점 추진

앞으로 총선이나 대선 등 공직선거 투표자에게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7일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표적 인센티브는 정부나 공기업에서 인재를 채용할 때 투표 여부를 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거나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투표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이 의원은 "선관위가 투

표참여확인서를 발급하는 방법이 가장 유력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법안에는 보궐선거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선거 실시일을 현행 수요일에서 토요일로 바꾸는 방안도 포함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경매투자

- ▶ 경매법률 배우면서 수익 내실분
- ▶ 입찰반4명 / 이론반 24명
- ▶ 주 1회 / 3개월 완성

특수 물건만 취급

주 오천경매 투자 연구소

OC & A Investment Institute

H·P 010 3605 5000 TEL 062 525 5000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23-2번지

E-mail : csg5000@hanmail.net

부실채권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각종공증문서 ■ 대여금
- 법원판결문 ■ 운송료
- 각종채권 ■ 구상금
- 물품대금 ■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수수료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미래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

여성가족부 인정

2012년도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광주광역시 북구청 승인 교육기관 : 08-1〉

- 교육일시(총100시간)
 - ▶ 2012년 7월 2일(월) ~ 8월 3일(금) 매주 월, 화, 목, 금 오후 6:00~
- 접수기간 : 2012년 6월 15일(금)까지
- 모집대상 (각 항에서 1개만 해당되면 가능)
 -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 ③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자
 - ④ 이주 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외국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⑤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장애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수 강 료 : 22만원
 - ※ 계좌 : 063-107-581656(광주은행) 예금주 : 광신교육원(가폭)
 - ※ 수강료를 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규정(법 제15조, 규칙 제16조)에 따라 환불조치하며, 2회 이상 수강이후 취소할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 ※ 교육생이 30명이 이상 모집되어야 개강이 가능하며, 미실시시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 교육특전 및 혜택
 - ① 교육훈련 교과목 중 이수하여야 할 이수별 총 시간의 90% 이상을 수료한 자에 대해서는 수료증과 가정폭력상담원 자격증 카드를 발급합니다.(출석시간 90% 미달자는 제적처리함.)
 - ② 본원의 가정폭력상담원 과정 중 **성폭력상담원 자격 취득 희망시** 별도비용과 추가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은 가정폭력방지법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 신고한 교육훈련시설으로서,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폭력상담원과 성폭력상담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 제출서류

- ① 신청서(소정양식)
- ②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③ 신분증 사본
- ④ 사진 2매
- ⑤ 경력증명서(해당자)
- ⑥ 자격증 사본(해당자)

광신대학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지 소로 36번지 교학처 (062)605-1112, 1063